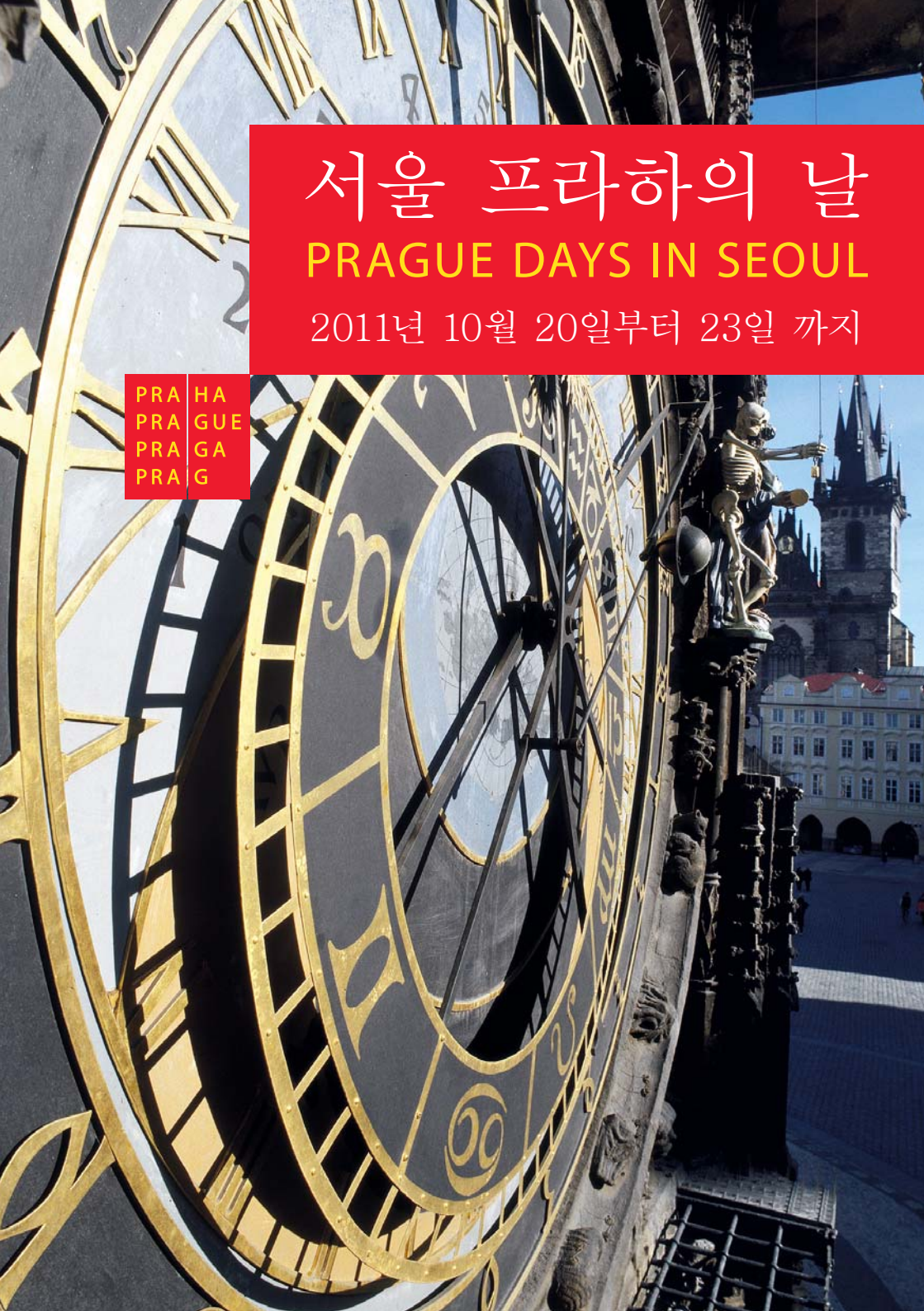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oster is a photograph of the Prague Astronomical Clock. The clock is a large, circular, golden structure with intricate designs and Roman numerals. It is mounted on a stone wall. To the right of the clock, there is a statue of a skeleton holding a clock. In the background, the spires of a Gothic building are visible under a clear blue sky.

서울 프라하의 날

PRAGUE DAYS IN SEOUL

2011년 10월 20일부터 23일 까지

PRA HA
PRA GUE
PRA GA
PRA G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수도 프라하의 시장으로서“서울 프라하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반가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우호 관계를 맺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프라하는 문화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코 독자들은 이미 몇몇 한국 문학 작품들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 독자들도 체코 작가들 예를 들면 카렐 차페크, 밀란 쿤데라 및 극작가 바츨라프 하벨 등의 작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국 대학교간의 관계, 교수들과 졸업생들은 양국 문화 이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프라하 까렐 대학교의 인기 많은 전공 학과들 중의 하나는 블라디미르 부췌크 교수가 설립한 한국학이며, 서울 외국어대학교에서는 권제일 교수 및 김규진 교수의 주도권 덕분에 체코학이

크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프라하에서 서울에서 온 예술가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 문화를 알게 될 기회에 답례하려고 합니다. 프라하는 서울보다 다소 작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 프라하의 날“ 행사 의 1차적 목적은 프라하와 체코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프라하 사진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제 상을 수상한 새로운 체코 영화 상영,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블랙라이트 씨어터 공연, 클래식 음악 연주회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또 프라하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자세한 관광 정보와 안내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들의 모친“ 이라고 불리는 프라하 도시의 풍경은 몇 해전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TV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분들이 프라하를 보다 더 잘 알게되고, 또 이를 계기로 장차 프라하를 방문하신다면 저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후슬라브 스보보다

Doc. MUDr. Bohuslav SVOBODA, CSc.

수도 프라하의 시장 primátor hlavního města Prahy

유럽의 보석-프라하

프라하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중 하나다. „서울 프라하 날“ 행사 기간중 행사장을 방문하면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 프라하에 대한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프라하는 „유럽의 보석“이라 불리며 매년 수 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프라하를 찾아 흥미로운 역사와 중세 건축물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감상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프라하의 시가지는 커다란 볼거리다. 봄, 여름철에는 도시 곳곳의 아름다운 공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블타바 강은 수 많은 유람선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또 커피향이 은은한 아늑한 커피숍과 식당들은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인다. 그에 더불어 다채로운 문화공연은 프라하의 추억을 잊을 수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곳

프라하는 역사 유적 외에도 많은 액티비티와 체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블타바 강 관광 크루즈의 특별한 체험, „체르토프카“라는 수로와 „프라하 베니스“도 구경할 수 있고, 밤에는 라이브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야경도 즐길 수 있다. 유람선을 타면 트로야에 위치한 체코에서 가장



큰 동물원까지 갈 수 있는데, 최근 태어난 동물들 중에 수컷 고릴라 키부리와 올해 초에 태어난 로스차일드 새끼 기린이 있다.

프라하는 문화 축제로도 유명하다. 꼭 언급해야 할 올해 행사는 제 66회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이다. 이 축제 피날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400 명의 음악가들이 참석하여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8번을 연주할 것이다. 제 3회 부활절 축제에는 종교 음악과 함께 제즈 선율도 들려줄 것이다. 팝뮤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프라하 역사적 중심지 블타바 강가 및 섬들에서 열리는 “프라하의 섬 축제(United Islands of Prague)”를 통해 음악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하는 스포츠 도시이기도 하다. 프라하에 머무르는 동안 자전거나 말을 타거나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골프 애호가들은 프라하에서 50킬로미터 내에 있는 17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 예약, 필요한 장비 등의 모든 서비스는 호텔측에서 마련한다.



축제 분위기

프라하의 관광철은 부활절과 관계가 깊다. 프라하 구시가 광장은 3월 부터 부활절을 맞아 독특한 색깔, 소리, 향기가 가득한 부활절 정원으로 변신한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프라하의 역사적 중심지 또한 놓치지 말 것. 가장 재미있는 코스는 „왕의 길“이다. 과거엔 바로 이 길로 구시가에서 프라하성까지 체코 왕의 대관식 행렬이 지나간 코스다.

프라하 성 근처의 독특한 궁전 정원도 가 볼 만하다. 영국의 왕세자 찰스도 이 정원들을 복원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정원들은 레데부르 정원, 작은 팔피 정원, 큰 팔피 정원, 킬러브라트 정원, 작은 뤼르스텐베르크 정원, 큰 뤼르스텐베르크 정원, 브르트바 정원이다. 특히 볼 만한 것은 네덜란드의 르네상스 조각가 아드리안 데 프리스의 유명한 청동상과 집단 조각상들이 위치한 정원으로, 발드스테인 정원이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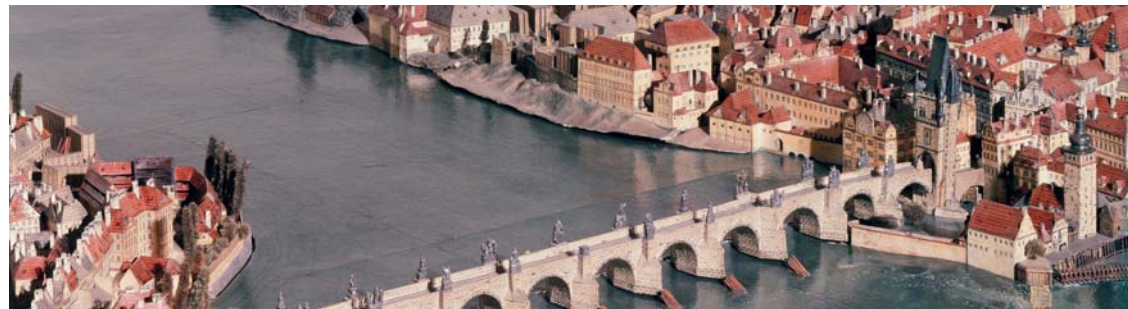
„파노라마 프라하“ 전시회

„파노라마 프라하“ 전시회는 천년 이상 체코의 수도이자 중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프라하의 변화를 소개한다. 방 문자들에게 알려 저 있는 화가 및 삽화가 바츨라프 얀사 (Václav Jansa, 1859-1913)의 그래픽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바츨라프 얀사는 역사적 중심지의 일부(유대인 지구)가 재건되고 중심 거리들의 구조가 새로 만들어진 1895-1899년 사이 프라하에 집중했으며 역사적 도시의 매력과 그 시대의 특징을 실감나게 그렸다. 그 당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 생활(예를 들면 의복, 행위 등등)에서 일어난 큰 변화도 명확히 보여 준다.

주요한 전시품은 수도 프라하 국립 박물관의 주건물에 보존되어 있는 유명한 랑와일의 프라하 모형의 복제물이다. 이 모형은 1826-1837년 사이에 대학교 도서관의 직원 안토닌 랑와일 (Antonin Langweil)에 의해 종이로 만들어졌다. 프라하 역사적 중심지의 2천 여개의 건물들을 1:480비율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현재까지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 이 모형은 유대인 지구가 포함된 구시가, 페트르진 언덕이 생기기 이전의 소지구, 보호르젤레즈 없는 프라하 성과 흐라드차니, 그 리고 신시가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중세 시대의 도시화는 모형의 사진들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형 일부의 복제물 -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들 중의 하나인 구시가 광장만 발표한다.

전시회의 마지막 일부는 체코 수도의 유적지를 소개하는 현대적인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 세기를 버텨온 역사적 종교 건물들과 세속 건물들 덕분에 이러한 건축물들과 어우러진 프라하와 같은 분위기 있는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장 오래된 건물들은 천년 이상 된 것도 있다. 프라하는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큐비즘, 기능주의 등 모든 건축양식으로 온 세계 방문자들을 유혹한다. 저명한 프라하 사진가 폴라크 (Polák)가 만든 대규모의 파노라마들을 보면 프라하의 미소, 매혹과 비방적인 분위기가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파노라마 프라하“ 전시회는 2011년 20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 정보: www.muzeumprahy.cz



프라하 근교 관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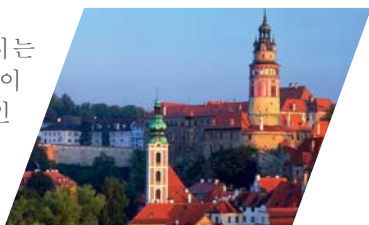
체코 공화국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오스트리아와 인접해 있다. 78,867 km²의 면적을 갖는 체코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3개 나라 - 체코, 모라바 및 슬레스코의 일부의 영토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수는 대략 1,050만 명이다. 공용어로는 체코어가 쓰이고 있지만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체코공화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통화로 „체코 코루나“가 사용된다.(현재 환율은 1 USD = 16 CZK, 1 EUR = 24 CZK이다.)

체코 공화국은 나라의 면적이 작아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지방마다 전혀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어 유럽국의 다양성을 철저히 대표하는 나라다. 서쪽으로는 온천, 북쪽으로는 산과 모래 바위 도시들, 남쪽으로는 연못들, 동남쪽에서는 화창한 포도밭 지역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인 도시들, 독특한 성과 사토들,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온천 도시들, 누구나 지도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수 천 킬로미터 길이의 여행 코스들과 자전거 코스, 거기에 상담회에 알맞은 장소들 등을 더하면 단 며칠만으로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프라하에서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가 좋을까?

체스키 크룸로프 (Český Krumlov)

남쪽에 위치한 체스키 크룸로프 시는 프라하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그곳은 역사적인 중심을 뱅글뱅글 돌려 블타바 강의 곡류를 따라 펼쳐져 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주요 아름다움은 도시 전체가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중심 위 맞은 편 강가 바위 위에 장엄한 성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성에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르네상스 탑에서 주변 경치를 멋지게 내려다 볼 수 있다. 그 성에는 또한 유럽 내에선 유일무이한, 오리지널 의상 및 무대 시설을 포함한 바로크 성 연극장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수 많은 우아한 식당들, 커피숍과 기념품 상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매년 그곳에서 일련의 문화 행사 및 음악 축제들이 열린다.

관련 정보: www.ckrumlov.cz



카를로비 바리 (Karlovy Vary)

온천 치료는 서쪽 체코에서 중세 시대 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카를로비 바리는 그 지역의 온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13개의 광천수 덕분에 명성을 이루었다. 또 다른 치료 효과가 있는 카를로비 바리의 원천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베헤로브카 (Becherovka)“ 약초주 이다. 일반 접시만큼 크고 아주 얇은 데다가 바삭바삭한 온천 웨하스 과자 또한 기회가 된다면 꼭 맛보기를 추천한다. 관련 정보: www.karlovyvary.cz

쿠트나 호라 (Kutná Hora)

쿠트나 호라는 중세시대 은광산으로 „체코 왕국의 보석함“이라고 불리던 작지만 부유했던 소도시. 광부들의 수호성인에게 바쳐진 웅장한 후기 고딕양식의 성 바르보라 대성당에서부터 광장에 들어 서 있는 집과 호화롭게 장식된 분수까지 - 도시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정보: www.kutnahora.cz



카를슈테인 성 (Hrad Karlštejn)

프라하 서남쪽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카를슈테인 성은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체코의 통치자인 카렐 4세에 의해 건설됐다. 카렐 4세는 말을 타고 프라하에서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이 성을 명상과 기도를 드릴 수있는 장소로 이용했다. 또한 왕권의 상징인 보석과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도 사용되었다. 관련 정보: www.hradkarlstajn.cz



코노피슈테 샤토 (Zámek Konopiště)

프라하 동남쪽, 베네쇼프 시 (Benešov)에 밀접한, 로맨틱한 코노피슈테 샤토는 1914년 여름에 사라예보에서 암살되어 제 1차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에 의해 여름 궁궐로 쓰였다.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이 샤토에서는 다양한 골동품과 사냥과 관련된 수집품을 볼 수 있다.

관련 정보 www.zamek-konopiste.cz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Virtuosi di Praga)의 연주회

2011년 10월 21일후 8시

올드리흐 블젝 (Oldřich Vlček)

올드리흐 블젝은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오케스트라의 설립자이다. 첫 음악 교육은 고향 스트라코니체 시 (Strakonice)에서 보후밀 커트멜 (Bohumil Kotmel) 음악가에게서 받았으며 그 이후 노라 그룸리커바 (Nora Grumliková)교수와 요세프 블라흐 (Josef Vlach)교수의 지도를 받아 프라하 국립 공연 예술 대학교를 졸업했다. 체코 필하모니 주지휘자 바츨라프 너이만 (Václav Neumann)에게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이탈리아 시에나 시에서 음악 교육을 수료했다.

이 후 그는 곧 콘서트 마스터 프라하 실내악단의 콘서트마스터가 되었다. 1976년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오케스트라를 설립했는데, 그곳에서 오케스트라 독주자, 지휘자이자 미술 감독역을 맡고 있다. 솔로악과 실내악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 음악 축제 „본테스“(번역 „이해의 다리“)의 설립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P. Domino, J. Cura, J. Suk (비발디 콘서트의 CD), A. Meneses, B. Hendricks, P. Schreier, Ch. Benda, Sir Ch. Mackerras (CD 헨델의 Concerti Grossi 및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M. Rostropovic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협연하고 있다. 블젝의 지휘하에 200장 이상의 CD가 쏟아져 나왔다. 프라하 실내악단과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외에는 Florence Sinfonietta, Milano Classica, Seoul symphony Orchestra, Toronto Philharmonia,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Philharmonia Czenstochowa 등이 있다

외국에서도 많은 오케스트라나 필하모니를 지휘했다. 유럽 전역을 비롯, 미국,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무대에도 선 경험이 있다.

아름답게 번영한 프라하

블레다르 자이미 (Bledar Zajmi)

솔로 비올론첼로 연주자로 1973년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태어났다. 비올론첼로 연주를 배우는 것은 6세 때부터 시작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다.

12세 때 그는 알바니아 국립 비올론첼로 대회에서 2등을 했고, 다양한 국내외 콘서트에 등장하기 시작, 티라나 음악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라하 국립공연예술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루돌프 로이다 (Rudolf Lojda)교수의 지도를 받아 1992 - 1997년 까지 수학. 당시 오스트리아 세메링의 "Summer Music Academy"에서 요세프 후흐로 (Josef Chuchro)교수가 인도하는 마스터 코스에 참석했다. 이미 대학교 때부터 솔로 연주 및 실내악 연주에 집중했었고, 후에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체코 무대에 서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1999년에 이탈리아 피날레 리구레에 열리는 국제실내악 대회 "Palma d'Oro" (비올론첼로와 피아노의 듀엣)에서 2등을 한 데다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 이탈리아 San Bartolomeo al Mare의 국제 실내악 대회 „Rovere d'Oro" (비올론첼로와 피아노의 듀엣)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러 실내악 합주단과의 협연으로 다수의 CD를 발매했고 체코 라디오 방송국과 체코 TV 방송사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녹음한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 일본, 중국 및 브라질 등 외국에서도 연주한다.

2000년부터 프라하 국립 극장 오페라의 비올론첼로 그룹의 콘서트 마스터를 맡게 되었으며 1996년산 얀 슬리프카 (Jana Slipka)의 비올론첼로 "클라루스" (Clarus)를 연주한다.



비르투어시 4중주단 (Virtuosi Quartet)

체코 실내악 합주단은 바이올린 명연주자 올드리흐 블젝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오케스트라의 주도하에 있다. 이들의 풍부한 연주곡목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작곡들, 현재는 작곡가의 실내악도 포함되어 있다. 비르투어시 4중 주단은 설립됐을 때부터 전세계의 수 많은 콘서트 공연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음반 제작사들과 방송국들을 위한 CD들도 많이 녹음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다수의 음악가들 - 이스라엘 소프라니스트 Sivan Rotem, 이탈리아 플루트 연주자 Giuseppe Nova, 러시아 비올론첼로 연주자 Marina Tarasova, 몬테네그로 피아니스트 Boris Kraljevič, 아이슬란드 피아니스트 Steinunn Birna Ragnarsdóttir, 벨기에 피아니스트 Joanna Trzeciak, 체코 전자 건반 악기 연주자 Eduard Spáčil이나 알바니아 비올론첼로 연주자 Bledar Zajmi 등이 비르투어시 4중주단과 협연하고 있다.

비르투어시 4중주단은 최근에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페인, 세르비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게다가 몇몇의 영예로운 국제 음악 축제에도 참가했다.

비르투어시 4중주단원들은 올드리흐 블젝 (Oldřich Vlček), 마르틴 투피 (Martin Tupý), 마르타 쉬펠리노바 (Marta Špelinová)와 렌카 가발로바 (Lenka Kavalová)이다.

2011년 10월 21일 연주회 프로그램: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KV 136

Allegro, Andante, Presto

보후슬라브 마르티뉴: 세레나데 2번

Allegro, Poco Andante, Allegro con brio

프랑수아 쿠프랭: 첼로와 현악 4중주 협주곡

Prélude, Siciliana, La Tomba, Plainte, Air de Diable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과 첼로 협주곡

Allegro, Andante, Allegro

안토닌 드보르자크: 2개의 왈츠, 3개의 슬라브 무곡

비르투어시 4중주단:

올드리흐 블젝 (Oldřich Vlček) - 바이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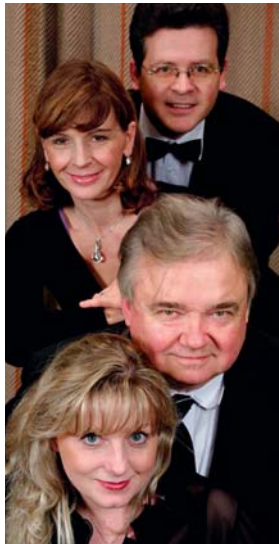
마르틴 투피 (Martin Tupý) - 바이올린

마르타 쉬펠리노바 (Marta Špelinová) - 비올라

렌카 가발로바 (Lenka Kavalová) - 첼로

블레다르 자이미 (Bledar Zajmi) - 첼로

관련 정보: www.virtuosidipraga.cz



체코 영화 상영

체코 공화국을 대표하는 흥미로운 영화 4편을 소개한다. 이 영화들은 최근 체코에서 제작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힌다.

2011년 10월 20일 오후 5시: „나의 아름다운 비밀“

2011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와 오후 5시: „아늑한 날들“

2011년 10월 22일 오후 5시 „뷰티 인 트러블“ / 상영 후 홍보 담당자와의 Q&A

2011년 10월 23일 오전 11시 와 오후 4시: „마하랄“

모든 상영작에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됨

얀 흐레베이크 (Jan Hřebejk) 감독 전기

얀 흐레베이크는 시나리오 작가 페트르 알허브스키(Petr Jarchovský)와 함께 먼저 스테판스카 고등학교에 이어 1987 - 1991년에 프라하 국립공연예술대학교 영화학부 시나리오 및 극작과를 졸업했다. 얀 흐레베이크는 이미 대학교 때 동기 페트르 젤렌카 (Petr Zelenka)가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체험을 무서워하지만 섹스에 대한 알고 싶은 모든 것“ (Co všechno chcete vědět o sexu a bojíte se to prožít, 1988년) 및 „1948년“ (L.P. 1948, 1989년) 2편의 단편영화를 감독, 제작하기도 했다. 그의 프로 감독 데뷔는 체코 TV방송사를 위하여 제작된 단편영화 „심각한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 (Nedělejte nic, pokud k tomu nemáte vážný důvod, 1991년)였다.

얀 흐레베이크는 과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페트르 알허브스키와 함께 여름 소년소녀 단원 캠프 환경에서 진행되는 세대의 코미디 „머리가 뻑뻑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자“ (Pějme píseň dohola)의 시나리오를 썼다. 1990년 감독 온드레이 트러얀(Ondřej Trojan, 현재 제작자)과 카메라맨 아센 셔퍼브 (Asen Šopov)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장편영화를 데뷔로 촬영했다.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성공을 크게 이룬 여자 배우 아냐 가이슬레로바 (Aňa Geislerová)와 남자 배우 얀 세머탄 (Jan Semotán, 유명한 체코 영화 „자칼 시대“에서 나왔다)이 아역 배우로 처음 등장했다.

작가 팀 얀 흐레베이크-페트르 알허브스키는 90년대 말 제작자이자 감독인 온드레이 트러얀의 영화 제작 회사 Total HelpArt T.H.A.와 손을 잡았다. 이 투자 제작의 배경을 이용해 얀 흐레베이크는 페트르 알허브스키의 시나리오로 가장 성공적인 장편 영화들을 촬영했다. 1999년에 국내 대 히트작 „아늑한 날들“ (Pelišky) 및 일년 뒤에 „나의 아름다운 비밀“ (Musíme si pomáhat)라는 영화를 찍었다. 이 후 제작된



작품은 거의 모든 세계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으며, 오스카의 외국어 영화상의 후보, 5개의 „체코 사자“라는 명칭의 국내 영화상, 일련의 국제 영화제상을 수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2003년에 관객들에게 특별한 평가를 받은 또 다른 영화 „푸펜도“ (Pupendo)를 개봉했다. 장편 영화들을 촬영하는 사이에 얀 흐레베이크는 뮤직 클립들, 광고들, 다큐멘터리들 (예를 들면 „페비오“ 회사에게 만들어 준 아이스하키 골키퍼 도미니크 하섹이나 체코 음악가 블라디미르 미시크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수많은 소규모 작품들을 감독했다.

„아늑한 날들“ Pelišky (Cosy Dens)

2011년 10월 21일후 4시

감독: 얀 흐레베이크 (Jan Hřebejk)

배우: 이르지 코데트 (Jiří Kodet), 에밀리아 바샤리오바 (Emília Vášáryová), 크리스티나 노바커바 - 푸이터바 (Kristýna Nováková - Fuitová), 미로슬라브 도누틸 (Miroslav Donutil), 시모나 스타쇼바 (Simona Stašová) 등등

이 영화는 삼 세대 -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 부모, 성숙해지는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줄거리는 맛있는 프라하 빌라 주택 „한스파울카“에서 대체로 60년대 말 - 1967년 가을에서 1968여름까지 벌어지며, 마지막 에필로그는 70년대까지 짧게 초월해 전개된다. 우리 나라의 어려운 시기였던 - 1968년의 삼세대 남녀의 생활이 가벼운 시적인 표현들과 유모가 가득한 과장들이 쓰이며 나란히 묘사된다. 이 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체코 영화 예술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들 중의 하나가 되어 사고 방식의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많은 체코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할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인용해 사용한다.

„뷰티 인 트라블“ Kráska v nesnázích (Beauty in Trouble)

2011년 10월 22일후 4시

감독: 얀 흐레베이크 (Jan Hřebejk)

배우: 아냐 가이스레로바 (Aňa Geislerová), 야나 브레이허바 (Jana Brejchová), 이르지 스미트체르 (Jiří Schmitzer), 에밀리아 바샤리오바 (Emília Vášáryová), 요세프 아브라함 (Josef Abrhám) 등등

얀 흐레베이크와 페트르 알허브스키는 영화와 똑같은 제목을 가진 영국 작가 로버트 그레이브스 (Robert Graves)가 쓴 시의 영감을 받아 젊은 여자에 대한 연애 이야기를 만들었다. 여자 주인공은 두 남자 (로만 루크나르 및 요세프 아브라함)에게 사랑 딜레마, 섹스 중독 및 보장된 자기 자신과 아이들 (아담 미시크, 미하엘라 드르피커바)의 미래 딜레마, 어머니 (야나 브레이허바) 및 새아버지(이르지 스미트체르)와의 관계, 시어머니 (에밀리아 바샤리오바)와의 관계 등 대인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영화는 익살스럽고 역설적인 결말로 가득하다. 관객들은 인상적인 배우들의 연기와 훌륭한 음악도 즐길 수 있다.

„나의 아름다운 비밀“ Musíme si pomáhat (Divided we Fall)

2011년 10월 23일후 2시

감독: 얀 흐레베이크 (Jan Hřebejk)

배우: 볼렉 펠리브카 (Bolek Polívka), 전 거르 카사이 (Csongor Kassai), 야로슬라브 두셱 (Jaroslav Dušek), 안 나 시스커바 (Anna Šišková), 이르지 베하 (Jiří Pecha), 마르틴 후바 (Martin Huba) 등등

독일 점령 시대 때를 줄거리로 한 이 코미디 작품도 얀 흐레베이크 - 페트르 알허브스키가 함께 만든 또 다른 작품이다. 작가들은 유머가 가득한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여 체코 역사의 슬프고 어려운 시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썼다. 가끔 뜻밖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점령 시대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슬픈 주인공은 퇴직한 소도시의 공무원 요세프 치첵 (Josef Čížek)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파트에서 젊은 유대인 망명자를 숨겨 주었다. 치첵의 아내 마리에에 관심이 있는 독일군 협력자 프로하카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체코인들을 그린 이 영화는 이미 사람들에게 논쟁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서 받았던 높은 평가와 일련의 국내외 수상들은 이 논쟁을 완전히 압도했다. 이 영화는 5개의 „체코 사자“라는 명칭의 국내 영화상과 체코 영화 평론가상을 수상했으며, 외국어영화 부문에서 오스카상의 후보작으로 지목되었다.

온 가족을 위한 영화 - 마하랄 Maharal

2011년 10월 23일후 11시

감독: 파벨 얀도우렉 (Pavel Jandourek)

배우: 보르지위이 나브라틸 (Bořivoj Navrátil), 바르보라 사이들러바 (Barbora Seidlová), 마티아쉬 발렌타 (Matyáš Valenta), 요세프 서르르 (Josef Somr), 아드리아나 노이바우에로바 (Adriana Neubauerová), 마로쉬 크라마르 (Maroš Kramár), 미로슬라브 타보르스키 (Miroslav Táborský) 등등

3명의 프라하 아이들 - 알레나, 다비드와 온드라 및 보물 사냥꾼 아론 코헨에 대한 소름 끼치고 상상적인 이야기는 프라하 구시가의 가장 신비한 장소들, 옛 성의 폐허나 불가사의한 옛 인물들 사이에까지 관객들을 이끌어 간다. 신비한 보물, 골렘과 철학자의 돌의 신나고 모험적인 보물찾기는 이 모든 장소에서 행해진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는 실제로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입수 가능한 역사 기록들은 훌륭한 프라하 랍비 예후다 뢰벤 베칼렐 (Jehuda Löw ben Becalel)이 소유했던 유명한 부적의 존재를 증명한다. 랍비가 죽음에 임해 선택된 2명의 사람들에게 부적을 전했으며 이 전설적 물건의 단서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까지는 추적할 수 있지만, 그 후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비한 부적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은밀한 보물의 길을 찾아 주는 모험 영화의 주요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연주회 - 상송 및 노래

2011년 10월 20일 오후 8시
2011년 10월 22일 오후 8시

조라 얀도바 (Zora Jandová)

조라 얀도바는 공연예술대학교 연극 학과를 졸업했으며, 7년동안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1987년 에 즈데넥 메르타와 함께 „초연“이라는 공연을 제작했는데 거기서 배우와 가수의 역할을 동시에 소화하며 처음으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다. 1992, 1994, 2000년에 “Songs from Prague” 및 “Because...(the world is round)”라는 프로그램으로 메르타와 함께 미국 순회공연도 가졌다.

최근에는 특히 음악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뮤지컬 „천사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라헬로, 뮤지컬 오페라 „바빌론“에서 큰 어머니로, 스타니스라브 모샤와 즈데넥 메르타가 쓴 뮤지컬 „지옥“에서 이브로 등장했다. 현재 브르노 시립 극장의 메르타와 함께 한 뮤지컬 „알몸인 뮤즈“에서도 공연하고, 아크로폴리스 극장에서 펠테크의 „핑크 안의 사망“에서

에디트 피아프로 분장했다.

그 외에는 „와이 물고기“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많은 노래들과 TV 방송 시나리오의 작가이다. 현재는 „황도십이궁 (Zodiac)“이라는 그림 컬렉션의 전시회 개막식을 준비하는 중이다. 중국 무술 태극권의 홍보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 계 선수권 대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

관련 정보: www.osobnosti.cz/zora-jandova

즈데넥 메르타 (Zdenek Merta)

즈데넥 메르타는 인정 받는 작곡가 그리고 음악 공연 제작자다. 프라하 컨저바토리에서 오르간 연주와 지휘를 공부한 후 공연예술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수십의 영화와 TV에 나오는 음악, 많은 노래들, 2개의 발레 (라테르나마기가 공연장의 카사노바), 몇몇의 실내악과 교향악 작곡들, 스타니스라브 모샤 (Stanislav Moša)와 함께 하여 브르노 시립 극장에서 나온 6개의 뮤지컬 („여름밤들의 꿈들“ - Sny svatojánských nocí, „바스타르드“ - „Bastard“, „천사가 가득한 세계“ - „Svět plný andělů“, „바비론“ - „Babylon“, „불가사의 정원“ - „Zahrada divů“, „지옥“ - „Peklo“) 등을 썼다. 프라하 국립 오페라에서도 그의 오페라 „La Roulette“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즈데넥 메르타는 다방면으로 뛰어난 음악가들 중 한 사람이다. 최근 활동으로는 조라 얀도바와 함께 한 어린이 노래의 프로젝트와 뮤지컬 „알몸인 뮤즈“, 교향곡 „The Last Century“, 작곡 „Via Lucis“,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얼마 전에 개봉된 교향곡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이 손꼽힌다.

관련 정보: www.zdenekmerta.cz

체코 그래픽 전시회

블라디미르 보우드닉 (Vladimir Boudník)의 수상

„블라디미르 보우드닉“ 상은 살아 있는 체코 그래픽 예술가에게 일생에 단 한 번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이 상은 1995년에 “Inter-Kontakt-Grafik” 협회와 프라하 시청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수상자는 미술 학자와 앞선 그래픽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매년 열리는 전국 대회 „금년도 최우수 그래픽“의 결과는 전시회 개막식 때 발표되어 프라하 시장이 수상자에게 상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수상은 60년대 체코 아방가르드의 위대한 인물 - 블라디미르 보우드닉의 이름으로 지어져 그의 작품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이 상의 의미는 그래픽 예술가들에게 체코 그래픽에의 창조적인 공헌 및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형태를 시기와 세대의 제한 없이 명시하는 그래픽 작품 컬렉션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알려져 왔던 위대한 예술가들 외에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의 독특하고 전방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올해의 최우수 그래픽“ 대회

„올해의 최우수 그래픽“은 매년 열리는 전국 체코 아트 그래픽 전시 대회이다. 1995년에 수도 프라하 시청과 협력하여 “Inter-Kontakt-Grafik” 협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회의 목적은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체코의 예술 평론가들, 예술가들, 대 학교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참가자는 그 해에 만든 한 가지 그래픽 작품으로만 자기 소개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전체적인 예술가의 공헌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그래픽 작품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다.

금년 „올해의 최우수 그래픽 전시회“는 2011년 10월13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정동갤러리 (Jeongdong Gallery) 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 정보: www.grapheion.c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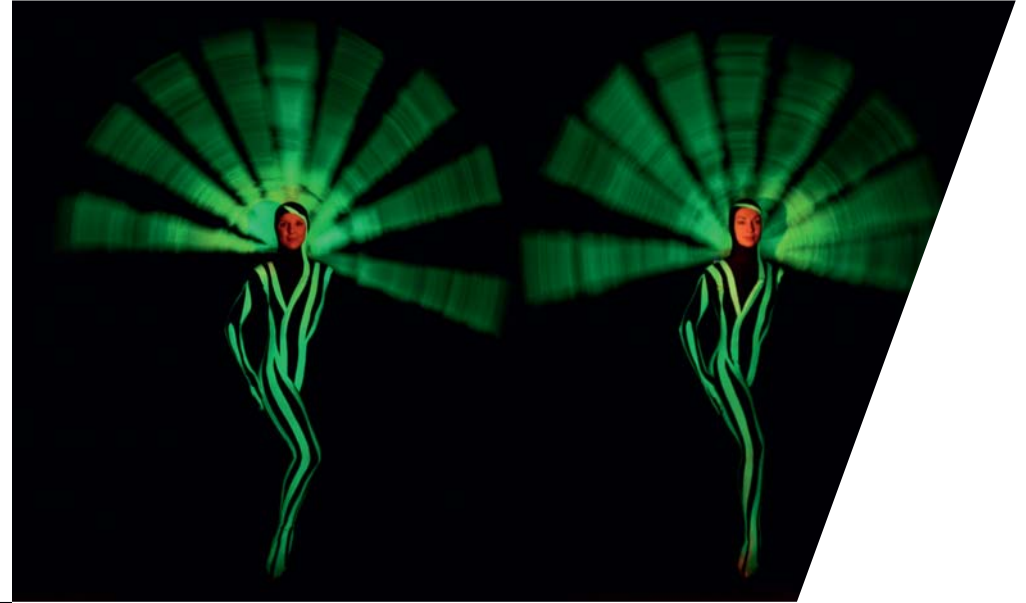
이미지 극장 (Image Black Light Theatre)

이미지 극장의 공연은 무용, 비언어적인 공연과 블랙라이트 씨어터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 라이트 씨어터의 원칙은 검은색이 검은 배경에서 안 보인다는 간단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효과는 무대 의상과 소도구의 특별한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발광 조명으로 강화된다.

블랙 라이트 씨어터는 체코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체코의 독창성은 극장 환경에서 이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체코 특유의 새로운 공연 분류가 창조되었다.

이미지 극장은 20여년 전 댄서이자 예술 감독으로



극장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발트 제국,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스라엘, 터키, 한국, 두바이, 인도, 홍콩, 마카오 등 많은 나라들의 무대에 섰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리바논과 터키 TV 방송사와 협력했다.

이미지 극장은 블랙라이트 씨어터의 원칙을 독특하게 이용하여 20년 간의 활동 기간 동안 현재까지 창조된 공연들 중 가장 훌륭한 댄스와 유머를 잘 버무려 이루어진 공연 „The Best of Image“를 소개하겠다. 저자 팀의 목적은 관객들이 즐기고 그들의 상상과 가상 세계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각각 일부의 제목:

소개, 마술 빛, 소세지, 비행사들, 부식성이 강한 물질, 새들, 볼링, 폴들, 증식, 내부, 나비들, 플래티니엄, 수술, 자전거, 반인, 모기, 피날레



활약했던 에바 아스테로바 (Eva Asterová)와 음악가이자 제작자인 알렉산데르 치하르즈 (Alexander Čihař)에 의해 설립되었다. 둘은 먼저 프라하 컨저바토리, 프라하 국립공연 예술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까지는 프라하 무대에서 7,000개 이상의 공연을 이루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거의 1백5십 만 명의 관객들이 이 공연들을 보았다. 그 외에도 이미지

저자 탐:

감독, 시나리오, 안무: 에바 아스테로바 (Eva Asterová)
 시나리오: 페트르 리스카 (Petr Liška), 레네 피시 (René Pyš),
 요세프 디히 (Josef Tichý), 미할 헤홀 (Michal Hecht)
 음악: 즈데벡 즈데벡 (Zdeněk Zdeněk)
 무대 의상: 다나 두레츠키바 (Dana Turečková)
 제작: 알렉산데르 치하르즈 (Alexander Čihař)
 댄서: 야나 사라커바 (Jana Šaráková), 자네타 체르노홀라프커바
 (Žaneta Černohlávková), 이보 이라섹 (Ivo Jirásek), 두산 그메트
 (Dušan Kmeť), 바벨 플로젝 (Pavel Plocek)
 배우: 페트르 리스카 (Petr Liška), 레네 피시 (René Pyš)
 검은 의상의 배우: 보제나 누스베르게로바 (Božena
 Nussbergerová), 카렐 구체라 (Karel Kučera), 마르틴 우드르잘
 (Martin Udržal)
 사운드 및 조명: 이르지 홀리 (Jiří Holý)

에바 아스테로바 (Eva Asterová)

이미지 극장의 예술 감독 및 설립자, 원래
 프라하 실내악 발레단의 솔로 댄서, 현재
 감독, 안무가, 공연 저자 („Jazzmime
 stories“ (1990년), „Fancy“ (1992년),
 „Night Flight“ (1994년), „Cabinet“
 (1997년), „Clonarium“ (1999
 년), „Fiction“ (2001년), „Frank
 & Joe shop'n show“ (2003년),
 „Black Box“ (2004년), „Studio
 Clip“ (2007년),
 „Afrikania“
 (2010년), „The Best
 of Image“ (2011년).

**알렉산데르 치하르
(Alexander Čihař)**

원래 음악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다양한 음악
 분류의 악단원, 이미지 극장의 전 공연 제작자.

관련 정보: www.imagetheatre.cz



콘서트와 공연이 어우러진 저녁

2011년 10월 23일 오후 8시

출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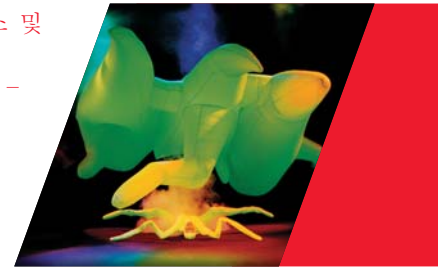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Virtuosi di Praga)
 조라 얀도바 (Zora Jandová) - 즈데벡 메르타 (Zdenek Merta)
 이미지 극장 (Image Theatre)

제목:

“클래식에서 현재까지 프라하의 체코 음악, 댄스 및
 블랙라이트 씨어터”

(Czech Music, Dance and Black Light Theatre –
 From Classical to Contemporary Style)

안토닌 드보르자크 (Antonín Dvořák),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Bedřich Smetana), 레오시
 야나체크 (Leoš Janáček), 요세프 수크 (Josef
 Suk), 즈데벡 즈데벡 (Zdeněk Zdeněk) 및
 조라 얀도바 (Zora Jandová) - 즈데벡 메르타
 (Zdenek Merta) 듀엣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제 1부**

1부에는 올드리치흐 블젝 (Oldřich Vlček)이 지휘하는 비르투 어시
 디 프라가 (Virtuosi di Praga) 현악 합주단은 가장 위대한 19, 20
 세기의 체코 작곡가의 연주곡목을 가지고 즈데벡 메르타 (Zdenek
 Merta) - 조라 얀도바 (Zora Jandová) 듀엣은 자신이 작곡한
 자작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휴식**제2부**

이미지 극장 (Image Theatre) 댄스와 블랙라이트 씨어터 앙상블의
 댄스 공연이 이어집니다. 에바 아스테로바 (Eva Asterová)는 감독과
 안무의 두 분야에서 체코 전통을 따라 블랙라이트 씨어터의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댄스를 선보입니다.

비르투어시 디 프라가 현악 합주단과 조라 얀도바 (Zora Jandová)
 - 즈데벡 메르타 (Zdenek Merta) 듀엣이 현대적인 연주를 합니다.

이어 이미지 극장의 댄스 공연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공연에 참가한 음악가, 가수와 댄서들이 즈데벡 즈데벡
 작곡가와 에바 아스테로바 안무가의 작품인 "반인들" („Halfpeople“)
 이 나옵니다.

프라하 필하모니 (Pražská komorní filharmonie)

프라하 필하모니 (Pražská filharmonie)는 1994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이르지 벨로홀라벡 (Jiří Bělohlávek)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 필하모닉은 체코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로 외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프라하 필하모니는 빈의 고전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구조에서 기초하며 주로 빈의 고전주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에 더해 낭만주의와 20세기 작품 그리고 현 대 음악과 특별 콘서트들이 더해지게 되었다.

프라하 필하모니는 세계적인 콘서트 홀 무대에도 자주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프라하 필하모니는 라디미르 아시케나지(Vladimir Ashkenazy), 예핌 브론프만(Yefim Bronfman), 안드라스 시프(András Schiff), 솔로모 민츠(Shlomo Mintz), 장영주(Sarah Chang), 미샤 마이스키(Misha Maisky), 막달레나 코제나(Magdalena Kožená), 안나 네트레브코(Anna Netrebko), 롤란도 빌라존(Rolando Villazón), 플라시도 도밍고(Plácido Domingo) 등등 세계적인 지휘자 그리고 연주자들과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라하 필하모니는 Deutsche Grammophon, Decca, Supraphon, EMI, Harmonia Mundi 등등 세계 음반 제작사들을 위하여 60장 이상의 CD들을 녹음했습니다. 최근 앨범 중에 2010년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의 개막식 콘서트 때 베드르지흐 스메타나(Bedřich Smetana)의 “나의 조국”을 주제로 한 라이브 녹음은 주목할 만합니다.

프라하 필하모니가 2011 - 2012년 콘서트 시즌을 위해 계획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 중에 일본 연주 여행,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Vladimir Spivakov)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콘서트, 막심 벤게로프 (Maxim Vengerov)와의 가을 연주 여행이나, 안나 네트레브코(Anna Netrebko), 에르빈 슈로트(Erwin Schrott), 요나스 카우프만 (Jonas Kaufmann)과의 협연등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라하 필하모니의 주지휘자는 2008 - 2009년 시즌 초부터 야 콥 흐루샤 (Jakub Hrůša)가 맡아왔습니다.

관련 정보:

www.praguephilharmonia.com



프라하 - 서울 직항편

19.-21.세기 양국 수도 간의 관계

프라하와 서울을 이어주는 대한항공 직항편이 지난 7년 간 1년에 약 200회의 이.착륙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10만여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항공편으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방문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체코를 찾는 이유는 프라하의 풍광을 즐기기 위한 것은 물론 프라하를 경유해 체코의 또 다른 장소를 여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체코 관광객들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 인천 국제 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서울의 풍광을 느껴보기 위해 몇 시간이나 밤을 새는 등 짧은 시간이나마 서울에 머물기 위해 도중하차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체코는 올해 봄에 국교를 맺은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양국은 또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 국경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정권 붕괴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우리 두 나라간에 폭넓은 관계를 가능케 만든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요즘은 프라하 사람들보다 서울 사람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 프라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미 1901년에 체코 여행가 엔리케 스타코 브라스 (Enrique Stanko Vráz)는 몇 주간 서울을 방문해 역사적인 사진들을 촬영했으며, 그 후 30년간 체코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온 세계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상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방문한 첫 프라하 시민은 그가 아닌 중국 상해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사인 요세프 하스 (Josef Haas)였습니다. 요세프 하스는 첫 체코 중국학 학자들과 사이가 아주 좋아 그 때 얻었던 일련의 예술 작품들을 현재 프라하의 “아시아, 아프리카 및 미국 문화의 나프르스텍 박물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관세청의 설립에 관한 여러 작업에 참여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 첫 우표가 발행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원래 고향은 프라하였지만 미국에 살면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던 막스밀리안 타우블레스 (Maxmilian Taubles)로 하스의 방문 2년 후만에 서울로 가게 되어 한국 역사에 대해 이어 두 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간 첫 해외특파원으로서, 두 번째는 한국에 체류한 지 4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한국이 열린 후 서울에서 사망한 첫 유럽인이기도 합니다.

요세프 하스 및 막스밀리안 타우블레스가 오늘날 다시 살아 돌아온면 21세기 서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관세청은 매년 체코와 한국 간에 이동하는 25억불 가치의 제품들을 해결해야 되고, 체코와 한국 신문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보도되고 있는 뉴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두 체코인들은 그들이 고향에서 익숙했던 수 없이 많은 체코 제품들의 최근에 한국에서 흔히 구입될 수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더 크게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체코 전통 음식인 „굴라쉬 (guláš)“를 먹기 위해선 „캐슬 프라하 (Castle Praha)“ 식당에 가면 되고, 대 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에선 „필스너우르켈 (Pilsner Urquell)“, „부드바르 (Budvar)“, „감브리누스 (Gambrinus)“등 그들이 딱 좋아하는 체코 맥주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상점에서 체코 크리스탈 글라스나 중유럽에 몇 세기 동안 인기가 있는 „쯔비벨 무스터 (cibulák)“ 체코 전통 도자기 식기 세트도 쉽게 사가지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친구들에게 19세 기말 프라하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들의 당대 친구와 동료들이 무엇을 집필했는지 얘기하려면 교보 서점에 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얀 네루다 (Jan Neruda)나 율리우스 제예르 (Julius Zeyer)의 한국말로 번역된 체코 소설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체코와 대한민국, 프라하와 서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은 대한항공 그리고 양국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추억을 통해 하나로 결속돼 있습니다.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
H.E. Jaroslav Olša jr.
주한 체코 대사 velvyslanec

Prague Days in Seoul – Programme

Date	Venue	Time	Original Schedule
Thursday 20 Oct 2011	Sejong Arts Center–M Theater	8.00 pm	Image Black Light Theatre – Performance
	Sejong Arts Center–Chamber Hall	8.00 pm	Chansons and Songs – Zora Jandová + Zdenek Merta
	Seoul Museum of History	8.00 pm	Virtuosi di Praga – Concert
Friday 21 Oct 2011	Sejong Arts Center–M Theater	4.00 pm	Movie: "Cosy Dens" (with Korean subtitles)
	Sejong Arts Center–Chamber Hall	8.00 pm	Virtuosi di Praga – Concert
Saturday 22 Oct 2011	Cheonggye Plaza	2.00 pm	Zora Jandová + Mimes of Theatre
	Sejong Arts Center–M Theater	4.00 pm	Movie: "Beauty in Trouble" (with Korean subtitles)
	Sejong Arts Center–Chamber Hall	8.00 pm	Chansons and Songs – Zora Jandová + Zdenek Merta
	Seoul Arts Center	8.00 pm	Prague Philharmonia – Concert
Sunday 23 Oct 2011	Sejong Arts Center–M Theater	11.00 am	Movie: "Maharal" (with Korean subtitles)
	Sejong Arts Center–M Theater	2.00 pm	Movie: "Divided we Fall" (with Korean subtitles)
	Sejong Arts Center–M Theater	8.00 pm	Czech Music, Dance and Black Light Theatre – From Classical to Contemporary Style
	Seoul Arts Center	8.00 pm	Prague Philharmonia – Concert
15 Oct –19 Nov 2011	Seoul Museum of History 50, Saemunam-Gil, Jongno-gu, 110-062	Thu–Sun 9.00 am –7.00 pm	Exhibition „Prague Panoramic“
13 Oct –23 Oct 2011	Jeong Dong Gallery 1F Salvation Army Center Hall, 1-23, Jeong-dong, Jung-gu, 100-120 Seoul	daily 10.00 am –7.00 pm	Exhibition „The Best of Prague Graphic Arts“

